



박소현의 섹.시.토크

U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못 하나를 박아도 대충 망치질 몇 번으로 끝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대충 한군데 쏟아버리기 일쑤였다.

회사일 역시 그다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최선을 다해도 부장에서 끝나고 대충해도 부장에서 끝난다는 것이 남편의 지론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싫기만 했는데 살아보니 좋은 점도 있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대충해서 먹자는 것도 그렇고 집이 깨끗하지 않아도, 와이셔츠가 말끔히 다려지지 않아도 트집을 잡는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었다.

가끔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결핍하면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닦달하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충대충 사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전, 친한 친구 한 명이 놀려댔다. 선뜻기 바람을 쐬며 발 뺀고 앉아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잠자리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친구, 잠자리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신이 나서 자랑을 시작한다.

"우리 남편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한번 했다 하면 풀코스라니까."

잠자리에서의 풀코스가 대체 뭘까? U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다. 물어봤다가 괜히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리기 싫었기 때문이다.

"너희 부부는 어때?" "우리? 우리도 좋지. 좋아." 펄펄하게 마무



리하면서 U는 잠자리에서의 남편을 떠올려보았다. 남편은 잠자리에서도 대충 대충을 은뎀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뭘 그렇게 있어. 대충 씻고 나와." 사위라도 할라치면 이미 이 말부터 쏟아내

는 남편은 U가 씻고 나와서 놀기 무섭게 밀고 들어왔다. 키스라도 좀 하고 시작하자고 하면 아이와 뽀뽀하듯 입을 쪽 맞추고는 '뭣?'하고 검사 말

듯이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섹스가 끝이 좋을 리가 없었다. 하기는 하는데 대충하는 섹스라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시간이 짧다. 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침대 위에서 남편은 그저 '대충 끝내자'는 생각뿐인 듯 보였다.

끈끈한 시선도 몸으로 나누는 깊은 교감도 없었다. 그저 시능만 내는 남편의 의무방어진만 있을 뿐

이었다. 사실 많은 아내들은 U가 그렇듯 남편의 이런 모습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친구의 방문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들 이렇게 살겠지, 대충했겠지 라고 생각

하며 살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제야 뒤늦게 화가 나고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솟구친 U는 급기야 남편에게 대충대충 사는 게 얼마나 상대를 지치게 하는가를 알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며칠 뒤 어느 밤, 남편은 다른 날처럼 역시 손을 뻗어 가슴을 대충 한번 만지더니 옷을 벗고 돌진해 들어왔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U, 그녀는 남편이 삽입을 시작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몸을 빼며 "난 끝났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는 남편에게 "대충하자"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정도면 한방 먹었겠지, '당신 왜 이래.' 하고 말을 걸어오겠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부부관계만큼은 대충하지 말라고 하자. 그게 시작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가야지.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U, 그런데 잠시 뒤에 들려오는 것은 잠이 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였다.

"당신 자? 잠이 와?" "화를 참지 못하고 다그치는 U에게 남편은 잠결에도 이렇게 대답했다. "대충하고 자." <연애칼럼 니스트>

대충대충 사는 남자

리빙 센스

모발관리

- 1. 깨끗이 헹구기 모발을 샴푸나 린스가 남아 있으면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지며 두피에 트러블이 발생한다. 2. 모발 상태에 맞는 샴푸 사용 지성 두피는 세정력이 높은 것, 건성 두피와 손상된 모발에는 세정력이 낮고 컨디셔너 성분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 3. 자연건조하기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모발에 필요한 수분까지 증발시켜 버려 모발이 손상된다. 4.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방향으로 모발 끝에서 두피 쪽을 향해 빗을 경우 머리카락이 강한 마찰로 부서지면서 윤기를 잃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 빗은 건조한 모발에 정전기를 일으키므로 나무 소재 브러시가 좋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1일(음7월1일 癸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August 1st.

검색절정 키워드

이번 주 추수선수들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올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룡은 '골 넣은 골키퍼'로 네티즌의 짹 짹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40분, 정성룡이 상대 진영으로 날린 롱킥이 최전방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떨어진 뒤 상대 골키퍼를 넘어 그 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골 넣은 골키퍼' 정성룡 깜짝 주목

지 못했고, 정성룡의 골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천수·이동국 두 골잡이도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월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로 이적,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포트넘 헛스퍼) 설기현(풀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네 번째로 프리미어리가 된 이동국은 이후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성남 일화와의 경

을 땀으며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소속의 이천수도 같은 날 수원 삼성과 1년 임대 계약을 하면서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문화 대통령 서태지도 오랜만에 인기 검색어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은 서태지는 사진 주문으로만 1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는 등 식지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룡이 지난달 27일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짹 짹 선제골을 넣은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Go board game diagram for '제17회 광일승' (17th Kwangil-seung) tournament. Includes board layout and text: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Go board game analysis for '짜릿한 손맛' (Exciting Taste) match between Kim Gwang-sik and Park Joong-woo. Includes board diagram and commentary.

Baduk (Go) news for '장수 일본 기성전 2연승' (Longevity Japanese Championship 2 consecutive wins). Includes text about player Jangsu and match results.

English learning section '굿모닝 잉글리쉬 <1215>' with the question 'What else do you have to do?' and multiple choice answers.

Japanese learning section '오하오우 니혼고 <1215>' with the question 'おかげで水の泡(あわ)になっちゃったよ。' and Japanese dialogue.

Chinese learning section '니하오 쑹구위 <192>' with the question '你有驾驶证吗?' and Chinese dialogue.

Chinese learning section '한자 이야기 <832>' with the question '吉祥(길상) 길할 길, 상서로울 상' and explanation of the character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